

# 광주 지역 감염확산 '주춤'...2단계 거리두기 조정 검토

### 일일 확진자 수 줄어...최근 닷새간 지역사회 감염 '1명'

### 오늘 2단계 연장 여부 검토...“일상생활 병행 방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광주시 방역당국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4명이다. 이 중 171명은 대전 방문판매업체 발 소규모 집단감염이 급속 확산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환자다.

'2차 유행'은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대전-광주 지역간 방문판매업체 교류에서 촉발돼 활동 범위가 넓은 방문판매 영업 행위를 매개로 널리 퍼졌다.

특히 감염에 가장 취약한 연결

고리를 파고 들었다. 고령층 거주·요양 시설, 밀집 행사가 잦은 종교시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등지로 확산됐다.

최근엔 타 지역 거주 가족, 직장 동료, 지인 간 접촉으로까지 확산 폭이 커지며 'n차 감염'이 현실화됐다.

'2차 유행' 기간 중 일일 신규 확진자는 6월에만 27일 4명,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 등으로 집계됐다.

감염 확산세는 이달 1일 22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졌으나 이달 13일부터는 15일까지

는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생활체육 동호회와 송과 60번 환자 관련 일가족 모임이 감염원으로 확인된 16일과 18일에는 각각 5명, 10명이 신규 확진됐다.

그 사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도 추가 확진이 발생했다.

이달 22일에는 전과 경로를 알 수 없는 192번 환자의 가족·지인 간 소규모 모임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다.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은 '2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0' 명을 기록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은 지역사회가 아닌 해외유입 감염 사례다. 이달 24일 이후 최근 닷새간 발생한 지역사회 내 감염자는 1명에 불과하다.

감염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당초 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단계로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전제 하에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 방역단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시 방역당국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한인 29일 오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2단계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추

□ 확진자 현황 : 총204명 (단위 : 명)

확진자	격리 중	격리 해제	감염원인별 현황				
			신천지	해외유입관련*	해외유입*	지역사회	기타
204	75	129	9	6	25	151	13

\*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분류 기준 부합을 위한 통계 재조정  
- 해외유입관련(해외입국자의 접촉자) 6, 해외유입(해외입국자) 24

□ 일자별 발생현황 (단위 : 명)

합계	6.26 까지	6.27 (토)	6.28 (일)	6.29 (월)	6.30 (화)	7.1 (수)	7.2 (목)	7.3 (금)	7.4 (토)	7.5 (일)	7.6 (월)	7.7 (화)	7.8 (수)
33	4	4	3	12	22	6	8	16	7	6	8	15	
7.9 (목)	7.10 (금)	7.11 (토)	7.12 (일)	7.13 (월)	7.14 (화)	7.15 (수)	7.16 (목)	7.17 (금)	7.18 (토)	7.19 (일)	7.20 (월)	7.21 (화)	
3	9	5	7	1	1	5	-	10	1	-	4		
7.22 (수)	7.23 (목)	7.24 (금)	7.25 (토)	7.26 (일)	7.27 (월)	7.28 (화)							
9	2	-	1	-	-	1							

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집단·장소 등도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발적인 감염은 이어질 수 있으나, 일상생활과 방역을 함께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 규탄 행진하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반복되는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갑질 중단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 성추행 피해 뒤 사망 중학생 부모 “교육청·경찰 못믿어”

### “교육부-경찰청, 조사단 구성해 진실규명” 요구



또래들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신고한 뒤 병원 치료 중 숨진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8일 기준 20만9093명의 동의가 이뤄졌다.

“징계를 받아야 할 담당자들이 하는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교육부와 경찰청이 조사단을 구성해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또래 학생들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병원 치료 중 숨진 중학생 A군의 부모는 28일 “전남도교육청과 경찰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교육부와 경찰청이 나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A군의 부모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육당국이 사건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고 방치해 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숨졌다”며 “처음 학교폭력

신고를 했을 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청 주무관들이 뒤늦게 구성된 ‘영광학교폭력사고처리대책본부’에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피해자 조사는 지난 20일 1차례 밖에 없었고 가해자들은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날 오후에 대책본부의 조사결과와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 자리에 피해학생의 부모가 참

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늦게 말을 바꿨고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A군의 부모는 전남경찰의 능숙수사에 대해서도 분노하며 교육부와 경찰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모는 “아들이 사망했는데도 경찰은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교사를 40여일이 지난 뒤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했다”며 “이는 조사할 의의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가해학생들은 정상 등교해 교실에서 2차 가해까지 했다”며 “가해자들이 기속사에서 한 행동을 아들이 했던 것처럼 꾸민고 ‘가정법원에 불려가 재판 받을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은 담임교사가 가장 알고 있는데 참고인 조사가 뒤늦게 이뤄졌다”며 “4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이 구성한 대책본부와 전남경찰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며 “상급기관인 교육부와 경찰청이 조사단을 구성해 아들의 한을 풀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오유나 기자

## 술집서 행패 뒤 경찰관도 때린 50대 취객 구속

### 과거 비슷한 범행 수차례

술집에서 온갖 행패를 부리다 입건된 뒤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취객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반주하기 모니터·소파 등을 부수고 일행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또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다짜

고짜 회를 내며 기물을 부숴으며, 이를 만류하는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유치장 입감 전 신체검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도 주먹질을 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정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